

내신 기출

국어 비상 박안수 (1학기)

총력만능국어

www.chongmangug.co.kr

[교재 구입]

<<내신 기출 국어 비상 박안수>>

◆차례◆

1. 읽기의 가치와 즐거움

- (1) 자화상_윤동주-----1쪽 (47문제)
- (2) 책 속에 길이 있다_이권우-----16쪽 (37문제)

2. 마음을 잇는 소통의 창

- (1) 매체를 읽는 눈-----30쪽 (31문제)
- (2) 책임감 있게 글 쓰기-----44쪽 (23문제)
- (3) 서로를 존중하는 대화-----52쪽 (42문제)

3. 문학으로 그리는 삶

- (1) 첫사랑_고재종-----66쪽 (42문제)
- (2) 아홉 켄레의 구두로 남은 사내_윤흥길-----78쪽 (49문제)
- (3) 결혼_이강백-----102쪽 (54문제)
- (4) 반 통의 물_나희덕-----129쪽 (37문제)

4. 바른 말, 바른 글

- (1) 음운의 변동-----142쪽 (61문제)
- (2) 한글 맞춤법-----159쪽 (65문제)

5. 책 속의 지혜, 말 속의 길

- (1) 고릴라를 못 본 이유_이은희-----178쪽 (33문제)

▶정답 -----191쪽

▶해설 -----194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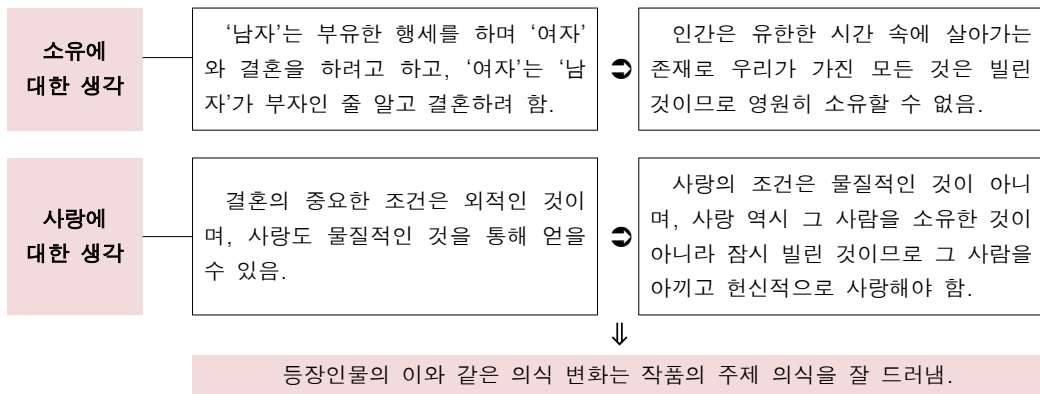
(버전: 2020.03)

3-(3) 결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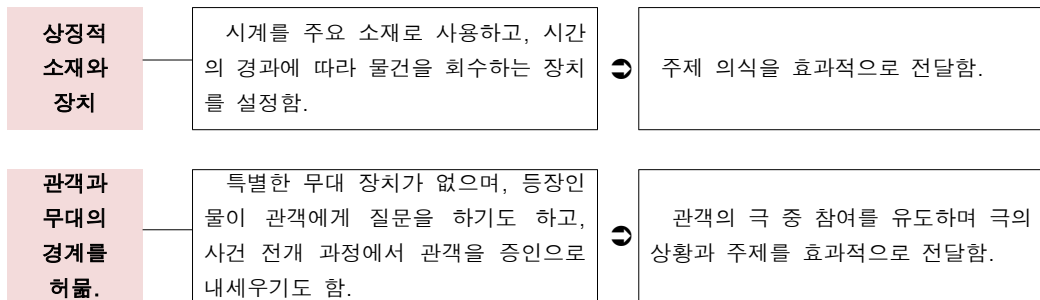
●핵심 정리

갈래	현대 희곡, 단막극, 실험극
성격	희극적, 비판적
제재	한 남녀의 결혼담
배경	•시간적: 현대 •공간적: 어느 저택의 응접실
주제	소유의 본질과 진정한 사랑의 의미
특징	•특별한 무대 장치가 없으며 무대와 관객석의 구분이 명확하지 않음, •관객을 극 안으로 끌어들이며 등장인물과 관객의 소통이 이루어짐.

1. '소유'와 '사랑'에 대한 등장인물의 의식 변화



2. 이 작품에 사용된 실험적 기법과 효과



뭔가 그리운 게 있어요. 덤, 덤, 덤…… 아버진 덤이 태어나자 달아나셨대요. 말하자면 뽕소닐 치신 거죠. 나중에 알고 보니 사기꾼이었고 어머니에게 보여 줬던 그 많은 재산은 모두 다 잠시 빌렸던 거래요.

<중략>

하인, 남자에게 봉투를 하나 내민다.

남자는 봉투에서 쪽지를 꺼내 읽더니 아무 말 없이 여자에게 건네준다.

여자 : “나가라!” 나가라가 뭐예요?

남자 : 네, 주인으로부터 온 경고문입니다. 시간이 다 지났으니 나가라는 거지요.

여자 : 나가라……. 그럼 당신 것이 아니었어요?

남자 : 내 것이라곤 없습니다. / 여자 : (충격을 받는다.)

남자 : 모두 빌린 것들뿐이었지요. 저기 두둥실 떠 있는 달님도, 저 은빛의 구름도, 이 하늬 바람도, 그리고 어쩌면 여기 있는 나머지도, 또 당신마저도……. (미소를 짓고) 잠시 빌린 겁니다.

여자 : 잠시 빌렸다고요? / 남자 : 네, 그렇습니다.

하인, 엄청나게 큰 구두 한 짝을 가져오더니 주저앉아 자기 발에 신는다. 그 구두발로 차 낼 듯한 험악한 분위기가 조성된다.

남자 : 결혼해 주십시오. 당신을 빌린 동안에 오직 사랑만을 하겠습니다.

여자 : …… 아, 어쩌면 좋아?

하인, 구두를 거의 다 신는다.

여자 : 맹세는요, 맹세는 어떻게 하죠? 어머니께 오른 손을 든…….

남자 : 글썸 그건……. (탁상 위의 사진들을 끌어 모아 여자에게 주면서) 이것을 보여 드립시다. 시간이 가고 남자에게 남는 건 사랑이라면, 여자에게 남는 건 무엇이겠습니까? 그건 사진 석 장입니다. 젊을 때 한 장, 그다음에 한 장, 늙고 나서 한 장. 당신 어머니도 이해할 겁니다.

여자 : 이해 못하실 걸요, 어머니. (천천히 슬프고 낙담해서 사진들을 핸드백 속에 담는다.) 오늘 즐거웠어요. 정말이에요……. 그럼, 안녕히 계세요.

여자, 작별 인사를 하고 문 앞까지 걸어 나간다.

남자 : 잠깐만요, 덤…….

여자 : (멈칫 선다. 그러나 얼굴은 남자를 외면한다.)

남자 : 가시는 겁니까, 나를 두고서? / 여자 : (침묵)

남자 : 덤으로 내 말을 조금 더 들어 봐요.

여자 : (악의적인 느낌이 없이) 당신은 사기꾼이에요.

남자 : 그래요, 난 사기꾼입니다. 이 세상 것을 잠시 빌렸었죠. 그리고 시간이 되니까 하나둘씩 되돌려 줘야 했습니다. 이제 난 본색이 드러나고 이렇게 빈털터리입니다. 그러나 덤, 여기 있는 사람들에게 물어봐요. 누구 하나 자신 있게 이걸 내 것이다, 말할 수 있는가를. 아무도 없을 겁니다. 없더니까요. 모두들 덤으로 빌렸지요. 눈동자, 코, 입술, 그 어느 것 하나 자기 것이 아니고 잠시 빌려 가진 거예요. (누구든 관객석의 사람을 붙들고 그가 가지고 있는 물건을 가리키며) 이게 당신 겁니까? 정해진 시간이 얼마지요? 잘 아꼈다가 그 시간이 되면 꼭 돌려 주십시오. 덤, 이젠 알겠어요?

여자, 얼굴을 외면한 채 걸어 나간다.

하인, 서서히 그 무거운 구두발을 이끌고 남자에게 다가온다. 남자는 뒷걸음질을 친다. 그는 마지막으로 절규하듯이 여자에게 말한다.

남자 : 덤, 난 가진 것 하나 없습니다. 모두 빌렸던 겁니다. 그런데 덤, 당신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당신이 가진 건 뭘입니까? 무엇이 정말 당신 겁니까? (넥타이를 빌렸던 남성 관객에게) 내 말을 들어 보십시오. 그럼 당신은 나를 이해할 거요. 내가 당신에게서 넥타이를 빌렸을 때, 그때 내가 당신 물건을 어떻게 다뤘었소? 마구 험하게 했었소? 어딜 망가뜨렸소? 아니요, 그렇지 않았습시다. 오히려 빌렸던 것이니까 소중하게 아꼈다가 되돌려 드렸지요. 덤, 당신은 내 말을 들었어요? 여기 증인이 있습니다. 이 증인 앞에서 약속하지만, 내가 이 세상에서 덤 당신을 빌리는 동안에, 아끼고, 사랑하고, 그랬다가 언젠가 시간이 되면 공손하게 되돌려 줄 테요. 덤! 내 인생에서 당신은 나의 소중한 덤입니다. 덤! 덤! 덤!

남자, 하인의 구두발에 걸어챈다.

여자, 더 이상 참을 수 없다는 듯 다급하게 되돌아와서 남자를 부축해 일으키고 포옹한다.

여자 : 그만해요!

남자 : 이제야 날 사랑합니까?

여자 : 그래요! 당신 아니고 또 누굴 사랑하겠어요!

남자 : 어서 결혼하러 갑시다, 구두발에 차이기 전에!

여자 : 이래서요, 어머니도 말쑥한 사기꾼과 결혼했었다던데…….

3-(4) 반 통의 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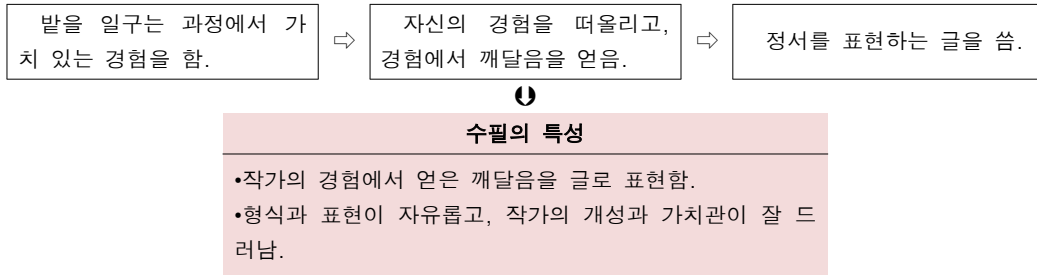
●핵심정리

갈래	현대 수필
성격	사색적, 체험적, 성찰적
제재	밭을 가꾸는 일
주제	밭을 가꾸면서 얻은 깨달음
특징	<ul style="list-style-type: none"> •농사를 짓는 자신의 체험에서 깨달음을 이끌어 내고 있음. •밭을 일구면서 느낀 점을 중심으로 짙막한 이야기들을 병렬적으로 나열함.

1. 작가의 경험과 깨달음

경험	깨달음
당근이 자랄 수 있도록 속아 준 일.	당근을 적절히 속아 내지 않으면 전체가 자랄 수 없음. 이를 통해 '적절한 거리의 중요성'을 깨달음.
밭에 풀을 뽑지 않아 잡초가 무성해진 일.	사람이 잡초와 채소를 구분하여 죽이고 살리는 것임. 선택보다는 공존의 질서가 필요함을 깨달음.
몸이 불편한 할아버지가 채소에 물을 주는 것을 본 일.	통에 담긴 물을 반 이상 쏟으면서도 물을 주러 가는 몸이 불편한 할아버지의 모습에서 생명을 사랑하는 소중한 마음을 깨달음.

2. 「반 통의 물」을 쓴 과정을 통해 알 수 있는 수필의 갈래적 특성



㉠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가) 당근 싹은 좀 늦긴 했지만 총총하게 돌아났다. 처음엔 그 어렵게 틈워 낸 이쁜 싹들을 숨어 내느니 차라리 잘고 못생긴 당근을 먹는 게 낫다고 그냥 두었다. 그러나 워낙 자라는 속도가 빨라 자리를 잡지 못하고 밀려나오는 뿌리가 하나둘이 아니었다. 이려다가는 당근 전체가 제대로 자랄 수 없을 것 같았다.

그것을 보면서 식물에게는 적절한 거리라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는 생각이 들었다.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도 지켜야 할 최소한의 거리가 깨졌을 때 폭력과 환멸이 생겨나는 것처럼, 좁은 땅에 서로 머리를 디밀며 얽혀 있는 그 붉은 뿌리들에서도 어떤 아우성이 들려오는 것 같았다. 내가 그들을 돕는 길은 갈 때마다 조금씩 숨어 주어서 그 아우성을 중재하는 일이었다. 농사를 배운다는 것은 바로 그들의 적절한 '거리'를 익히는 과정이 아닐까.

(나) 곱고 미운 것의 기준은 어디에 있을까. 사람이 먹을 수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 잡초와 채소를 구분하여 하나는 죽이고 하나는 살리는 것이 이른바 농사다. 그러나 미운 풀이 죽으면 고운 풀도 죽는다고 하지 않는가. 선택 보다는 공존이 땅의 본래적 질서라고 할 때, 밭은 숲보다 생명에 덜 가깝다.

그래서 밭을 일구면서 가장 고민되는 문제가 풀이다. 사람의 손이 미치지 오래전부터 이 둔덕에는 명아주, 저 둔덕에는 개망초, 이 고랑에는 돼지풀, 저 고랑에는 질경이……. 그들이 바로 이 땅의 주인이었던 것이다. 그런데 달갑지 않은 ㉡침입자가 삽과 호미를 들고 나타나 그것도 생명을 키운답시고 원주민을 쫓아내니, 사실 원주민 풀들에게는 명목이 서지 않는 노릇이다.

그렇다고 풀을 그냥 두면 뿌려 놓은 채소들이 자라지 못하게 되니 어느 정도는 뽑아 주어야 한다. 이런 안절부절 덕분에 우리 밭에는 채소가 반이고 잡초가 반이다. 변명 같지만, 다른 밭보다 우리 밭에 풀이 무성한 것은 게으름 때문만은 아니다. 만일 그렇다 해도 게으름이 농부의 악덕은 아닌 것이다.

(다) 물통을 들고 걸을 때마다 생각나는 사람이 있다. 우리 집에서 가까운 텃밭을 일구시는 어떤 할아버지인데, 물을 주러 가시는 모습을 몇 번 본 적이 있다. 그 할아버지는 몸 반쪽이 마비되어 걷는 게 그리 자유롭지 못하다. 성한 한쪽 팔로 물통을 들고 걸어가시는 모습은 거의 몸부림에 가까우면서도 이상한 평화 같은 것을 느끼게 한다. 절뚝절뚝 몸이 심하게 흔들릴 때마다 물은 찰랑거리면서 그의 낡은 바지를 적시고 길 위에 쏟아져, 결국 반통도 채 남지 않게 된다. 그렇게 몇 번씩 오가는 걸 나는 때로는 꿀 듯이 지나가는 발소리로 듣기도 하고, 때로는 마른 길 위에 휘청휘청 내고 간 젖은 길을 보고 알기도 한다.

그 젖은 길은 이내 말라 버리곤 했지만, 나는 그 길보다 더 아름답고 빛나는 길을 별로 보지 못했다. 그리고

어느 날부터인가 나 역시 그 밭의 채소들처럼 할아버지의 발소리를 기다리게 되었다. 반 통의 물을 잃어버린 그 발소리를.

물통을 나르다가 문득 이런 생각이 들곤 한다. 내가 열 번 오가야 할 것을 그 할아버지는 스무 번 오가야 할 것이지만, 내가 이 채소들을 키우는 일도 그 할아버지와 크게 다르지 않은 ㉢어떤 인간됨 때문은 아닐까. 몸에 피가 돌지 않는 것처럼 문득문득 마음 한쪽이 굳어져 가는 걸 느끼면서, 절뚝거리면서, 그러면서도 남은 반 통의 물을 살아있는 것들에게 쏟아붓고 싶은 마음. 그런 게 아니었을까?

- 나희덕, 「반 통의 물」

선사고등학교 (서울)

1. 밑글의 갈래적 특성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형식과 표현이 자유롭다.
- ② 자신의 정서를 진솔하게 담아 쓴다.
- ③ 글쓴이의 개성과 가치관이 잘 드러난다.
- ④ 글쓴이가 자신의 경험에서 얻은 소재를 바탕으로 쓴다.
- ⑤ 글쓴이가 상상한 내용으로부터 얻은 깨달음이나 통찰을 표현한다.

선사고등학교 (서울)

2. 밑글의 내용으로 볼 때 ㉣에 해당하는 것은?

- ① 잡초 ② 채소 ③ 농부
- ④ 밭 ⑤ 풀

선사고등학교 (서울)

3. (다)에서 ㉤의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생명을 소중히 여기는 마음
- ② 삽과 호미로 잡초를 뽑아주는 일
- ③ 자연과도 나눌 줄 아는 넉넉한 마음
- ④ 적절한 거리를 유지하고 싶은 마음
- ⑤ 선택 보다는 공존의 질서를 지키려는 마음

선사고등학교 (서울)

4. 윗글을 이해한 내용으로 적절한 것은?

- ① 당근 싹을 솥아 내면 잘고 못생긴 당근을 먹게 된다고 생각해 당근 싹들을 그냥 두었다.
- ② 사람 사이에 지켜야 할 최소한의 거리가 깨졌을 때, 폭력과 환멸이 증재된다.
- ③ 농사는 잡초와 채소를 모두 공존하게 하므로 숲보다 밭이 생명에 가깝다.
- ④ 글쓴이의 밭은 농부의 악덕인 게으름으로 풀이 무성하다.
- ⑤ 반 통의 물을 흘리며 가는 할아버지 모습을 보며 평화를 느낀다.

㉔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워낙 넉넉히 뿌린 탓인지, 새들이 당근씨를 별로 좋아하지 않는 탓인지, 당근 싹은 좀 늦긴 했지만 촘촘하게 돋아났다. ㉑처음엔 그 어렵게 틈워 낸 이쁜 싹들을 솥아 내느니 차라리 잘고 못생긴 당근을 먹는 게 낫다고 그냥 두었다. 그러나 워낙 자라는 속도가 빨라 자리를 잡지 못하고 밀려 나오는 뿌리가 하나둘이 아니었다. 이러다가는 당근 전체가 제대로 자랄 수 없을 것 같았다.

그것을 보면서 식물에게는 적절한 거리라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라는 생각이 들었다.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도 지켜야 할 최소한의 거리가 깨졌을 때 폭력과 환멸이 생겨나는 것처럼, 좁은 땅에 서로 머리를 디밀며 얽혀 있는 그 붉은 뿌리들에서도 어떤 아우성이 들려오는 것 같았다. 내가 그들을 돕는 길은 갈 때마다 조금씩 솥아 주어서 그 아우성을 증재하는 일이었다. 농사를 배운다는 것은 바로 그들의 적절한 '거리'를 익히는 과정이 아닐까.

미운 풀이 죽으면 고운 풀도 죽는다는 속담이 있다. 김을 맬 때마다 나는 그 말을 자주 떠올린다. 그럼 내가 뽑고 있는 잡초는 미운 풀이고, 키우고 있는 채소는 고운 풀이란 말인가. 곱고 미운 것의 기준은 어디에 있을까. 사람이 먹을 수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 잡초와 채소를 구분하여 하나는 죽이고 하나는 살리는 것이 이른바 농사다. 그러나 미운 풀이 죽으면 고운 풀도 죽는다고 하지 않는가. 선택보다는 공존이 땅의 본래적 질서라고 할 때, 밭은 숲보다 생명에 덜 가깝다.

그래서 밭을 일구면서 가장 고민되는 문제가 풀이다. 사람의 손이 미치지 오래전부터 이 둔덕에는 명아주, 저 둔덕에는 개망초, 이 고랑에는 돼지풀, 저 고랑에는 질경이……. 그들이 바로 이 땅의 주인이었던 것이다. ㉒그런데 달갑지 않은 침입자가 삽과 호미를 들고 나타나 그것도 생명을 키운답시고 원주미를 쫓아내니, 사실 원주민 풀들에게는 명목이 서지 않는 노릇이다.

그렇다고 풀을 그냥 두면 뿌려 놓은 채소들이 자라지 못하게 되니 어느 정도는 뽑아 주어야 한다. ㉓이런 안절부절 덕분에 우리 밭에는 채소가 반이고 잡초가 반이다. 변명 같지만, 다른 밭보다 우리 밭에 풀이 무성한 것은 게으름 때문만은 아니다. 만일 그렇다 해도 게으름이 농부의 악덕은 아닌

것이다.

<중략>

물통을 들고 걸을 때마다 생각나는 사람이 있다. 우리 집에서 가까운 텃밭을 일구시는 어떤 할아버지인데, 물을 주러 가시는 모습을 몇 번 본 적이 있다. 그 할아버지는 몸 반쪽이 마비되어 걷는 게 그리 자유롭지 못하다. ㉔성한 한쪽 팔로 물통을 들고 걸어가는 모습은 거의 몸부림에 가까우면서도 이상한 평화 같은 것을 느끼게 한다. 절뚝절뚝 몸이 심하게 흔들릴 때마다 이상한 평화 같은 것을 느끼게 한다. 절뚝절뚝 몸이 심하게 흔들릴 때마다 물은 찰랑거리면서 그의 낡은 바지를 적시고 길 위에 쏟아져, 결국 반통도 채 남지 않게 된다. 그렇게 몇 번씩 오가는 걸 나는 때로는 끝뚫이 지나가는 발소리로 듣기도 하고, 때로는 마른 길 위에 휘청휘청 내고 간 젖은 길을 보고 알기도 한다.

그 젖은 길은 이내 말라 버리곤 했지만, 나는 그 길보다 더 아름답고 빛나는 길을 별로 보지 못했다. 그리고 어느 날부터인가 나 역시 그 밭의 채소들처럼 할아버지의 발소리를 기다리게 되었다. 반 통의 물을 잃어버린 그 발소리를.

물통을 나르다가 문득 이런 생각이 들곤 한다. 내가 열 번 오가야 할 것을 그 할아버지는 스무 번 오가야 할 것이지만. ㉕내가 이 채소들을 키우는 일도 그 할아버지와 크게 다르지 않은 어떤 안간힘 때문은 아닐까. 몸에 피가 들지 않는 것처럼 문득문득 마음 한쪽이 굳어져 가는 걸 느끼면서, 절뚝거리면서, 그러면서도 남은 반 통의 물을 살아 있는 것들에게 쏟아 붓고 싶은 마음. 그런 게 아니었을까.

발곡고등학교 (경기)

5. 윗글의 특징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자신의 깨달음을 설의적 물음으로 전달하여 독자의 공감을 유도하고 있다.
- ② 글쓴이가 직접 경험한 것을 화자를 통해 전달하는 형식으로 구성되어 있다.
- ③ 관용적 표현을 사용하여 작가가 말하고자 하는 바를 함축적으로 표현하고 있다.
- ④ 짙막한 이야기를 나열하는 방식으로 글쓴이의 삶의 태도와 주제를 전달하고 있다.
- ⑤ 일상에서 겪은 일과 그것에 대한 깊은 생각을 통해 얻은 통찰을 글의 기본 구조로 하고 있다.

발곡고등학교 (경기)

6. ㉑~㉕에 대한 이해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㉑ : 다다익선(多多益善)이라고. 당근이 많을수록 좋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군.
- ② ㉒ : 풀과 채소가 주객전도(主客顛倒)된 모습을 통해 농사는 인위적인 행위라는 것을 깨달았군.
- ③ ㉓ : 밭의 풀을 맬 수도 없고 매지 않을 수도 없는 진퇴양란(進退兩亂)의 심정을 느낄 수 있군.

- ④ ㉔ : 겉모습과 풍기는 분위기가 모순(矛盾)적인 이유는 생명을 사랑하는 할아버지의 마음 때문이겠군.
- ⑤ ㉕ : 할아버지와 글쓴이가 채소를 키워내기 위해 고군분투(孤軍奮鬪)하였다는 것을 알 수 있군.

발곡고등학교 (경기)

7. 밑글에 쓰인 구절을 적절하게 이해하지 못한 것은?

- ① '아우성'은 채소가 촘촘하게 돌아나 있는 상태를 청각적으로 형상화한 것이다.
- ② '고운 풀'은 밭에서 기르는 채소를 가리키는 말로 글쓴이에게 이익이 되는 존재를 함축한 표현이다.
- ③ '달갑지 않은 침입자'는 밭에 심은 채소들을 의인화하여 표현한 것이다.
- ④ '원주민을 쫓아내'는 것은 잡초를 뽑아버리는 것을 비유적으로 표현한 것이다.
- ⑤ '반 통의 물을 잃어버린 그 밭소리'는 채소를 키우기 위한 할아버지의 정성을 청각적으로 형상화한 것이다.

발곡고등학교 (경기)

8. 다음에서 말하는 '도(道)'를 밑글의 글쓴이가 깨달았다고 할 때, 그 깨달음의 결과로 적절한 것은?

“무릇 피와 기운이 있는 것은 사람으로부터 소, 말, 돼지, 양, 벌레, 개미에 이르기까지 모두가 한결같이 살기를 원하고 죽기를 싫어하는 것입니다. 어찌 큰 놈만 좋아하고, 작은 놈만 죽기를 좋아하겠습니까? 그런즉, 개와 의의 죽음은 같은 것입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큰 놈과 작은 놈을 적절히 대조한 것이지, 당신을 놀리기 위해서 한 말은 아닙니다. 당신이 내 말을 믿지 못하겠으면 당신의 열 손가락을 물어 보십시오. 엄지손가락만 아프고 그 나머지는 아프지 않습니까? 한 몸에 붙어 있는 큰 지절과 작은 부분이 골고루 피와 고기가 있으니, 그 아픔은 같은 것이 아니겠습니까? 하물며, 각기 기운과 숨을 받은 자로서 어찌 저 놈은 죽기를 싫어하고 이 놈은 좋아할 터이 있겠습니까? 당신은 물러가서 눈감고 고요히 생각해 보십시오. 그리하여 달팽이의 뿔을 쇠뿔과 같이 보고, 메추리를 대붕과 동일시하도록 해 보십시오. 연후에 나는 당신과 함께 '도(道)'를 이야기하겠습니다.”

- 이규보, <술건설> 중에서

이 : (사람의 몸에서 피를 빨아 먹는) 잇과의 곤충
 지절 : 팔다리의 관절
 대붕 : 하루에 구만 리를 날아간다는 매우 거대한 상상의 새

- ① 촘촘하게 돌아난 당근을 적절하게 솟아준다.
- ② 곱고 미운 것의 기준이 무엇인지 사색해 본다.
- ③ 자신의 텃밭에 김을 매지 않아 풀이 무성하다.
- ④ 텃밭의 채소들이 잘 자랄 수 있도록 물을 준다.
- ⑤ 몸 반쪽이 마비된 할아버지와 자신을 비교해 본다.

참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십시오.

“좀 넉넉히 넣어요. 넉넉히.”

당근씨를 막 뿌리려는 남편에게 나는 몇 번이나 말했다. 다른 씨앗들은 한번 키워 보았기 때문에 감을 잡을 수 있겠는데, 부추씨와 당근씨는 올해 처음 뿌리는 것이라 ㉔대중이 서지 않았던 것이다.

게다가 아까부터 밭 주변을 종종거리는 참새 서너 마리가 어쩐지 마음에 걸린다. 작년에도 너무 얇게 씨를 뿌려 ㉕뿔을 본 적이 있기 때문이다. 씨 뿌린 지 두 주일이 넘도록 싹이 나오지 않아 웬일인가 했더니 새들이 와서 잘 잡숫고 간 뒤였다. 그제야 농부들이 씨를 뿌릴 때 적어도 세 알 이상씩 심는 뜻을 알 것 같았다. 한 알은 새를 위해, 한 알은 벌레를 위해, 그리고 한 알은 사람을 위해.

워낙 넉넉히 뿌린 탓인지, 새들이 당근씨를 별로 좋아하지 않는 탓인지, 당근 싹은 좀 늦긴 했지만 촘촘하게 돌아났다. 처음엔 그 어렵게 틈워 낸 이쁜 싹들을 솟아 내느니 차라리 잘고 못생긴 당근을 먹는 게 ㉖넋다고 그냥 두었다. 그러나 워낙 자라는 속도가 빨라 자리를 잡지 못하고 밀려 나오는 뿌리가 하나둘이 아니었다. 이러다가는 당근 전체가 제대로 자랄 수 없을 것 같았다.

그것을 보면서 식물에게는 적절한 거리라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는 생각이 들었다.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도 지켜야 할 최소한의 거리가 깨졌을 때 폭력과 ㉗환멸이 생겨나는 것처럼, 좁은 땅에 서로 머리를 디밀며 얽혀 있는 그 붉은 뿌리들에서도 어떤 아우성이 들려오는 것 같았다. 내가 그들을 돕는 길은 갈 때마다 조금씩 솟아 주어서 그 아우성을 ㉘중재하는 일이었다. 농사를 배운다는 것은 바로 그들의 적절한 '거리'를 익히는 과정이 아닐까.

미운 풀이 죽으면 고운 풀도 죽는다는 속담이 있다. 김을 맬 때마다 나는 그 말을 자주 떠올린다. 그럼 내가 뽑고 있는 잡초는 미운 풀이고, 키우고 있는 채소는 고운 풀이란 말인가. 곱고 미운 것의 기준은 어디에 있을까. 사람이 먹을 수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 잡초와 채소를 구분하여 하나는 죽이고 하나는 살리는 것이 이른바 농사다. 그러나 미운 풀이 죽으면 고운 풀도 죽는다고 하지 않는다. 선택보다는 공존이 땅의 본래적 질서라고 할 때, 밭은 숲보다 생명에 덜 가깝다.

그래서 밭을 일구면서 가장 고민되는 문제가 풀이다. 사람의 손이 미치지 오래전부터 이 둔덕에는 명아주, 저 둔덕에는 개망초, 이 고랑에는 돼지풀, 저 고랑에는 질경이……. 그들이 바로 이 땅의 주인이었던 것이다. 그런데 달갑지 않은 침입자가 삽과 호미를 들고 나타나 그것도 생명을 키운답시고 원주민을 쫓아내니, 사실 원주민 풀들에게는 명목이 서지 않는 노릇이다.

그렇다고 풀을 그냥 두면 뿌려 놓은 채소들이 자라지 못하게 되니 어느 정도는 뽑아 주어야 한다. 이런 안절부절 덕분에 우리 밭에는 채소가 반이고 잡초가 반이다. 변명 같지만, 다른 밭보다 우리 밭에 풀이 무성한 것은 게으름 때문만은 아니다. 만일 그렇다 해도 게으름이 농부

의 악덕은 아닌 것이다.

밭 바로 옆에는 우물이나 수도가 없다. 조금 걸어가야 그 마을 사람들에게 농수를 공급하는 수로가 있는데, 호스나 관으로 연결하기에는 거리가 제법 된다. 또 그러기에는 작은 밭에 너무 수선스러운 일인 것 같아 그냥 물을 한 통 한 통 길어다 주었다. 푸성귀들을 키우는 것은 물이 아니라 ㉠농부의 밭소리라는 말이 그냥 나온 게 아닌가 보다. 우리 밭을 흠족하게 적시려면 수로까지 적어도 열 번은 왕복을 해야 하니 그것도 만만치 않은 노릇이었다.

물통을 들고 걸을 때마다 생각나는 사람이 있다. 우리 집에서 가까운 텃밭을 일구시는 어떤 할아버지인데, 물을 주러 가시는 모습을 몇 번 본 적이 있다. 그 할아버지는 몸 반쪽이 마비되어 걷는 게 그리 자유롭지 못하다. 성한 한쪽 팔로 물통을 들고 걸어가는 모습은 거의 몸부림에 가까우면서도 이상한 평화 같은 것을 느끼게 한다. 절뚝절뚝 몸이 심하게 흔들릴 때마다 물은 찰랑거리면서 그의 낮은 바지를 적시고 길 위에 쏟아져, 결국 반통도 채 남지 않게 된다. 그렇게 몇 번씩 오가는 걸 나는 때로는 끝돏이 지나가는 밭소리로 듣기도 하고, 때로는 마른 길 위에 휘청휘청 내고 간 젖은 길을 보고 알기도 한다.

그 젖은 길은 이내 말라 버리곤 했지만, 나는 그 길보다 더 ㉡아름답고 빛나는 길을 별로 보지 못했다. 그리고 어느 날부터인가 나 역시 그 밭의 채소들처럼 할아버지의 밭소리를 기다리게 되었다. 반 통의 물을 잃어버린 그 밭소리를.

물통을 나르다가 문득 이런 생각이 들곤 한다. 내가 열 번 오가야 할 것을 그 할아버지는 스무 번 오가야 할 것 이지만, 내가 이 채소들을 키우는 일도 그 할아버지와 크게 다르지 않은 어떤 안간힘 때문은 아닐까. 몸에 피가 돌지 않는 것처럼 문득문득 ㉢마음 한쪽이 굳어져 가는 걸 느끼면서, 절뚝거리면서, 그러면서도 ㉣남은 반통의 물을 살아있는 것들에게 쏟아붓고 싶은 마음, 그런 게 아니었을까.

이 짙막한 이야기들은 그렇게 밭을 가꾸는 동안 절뚝거리던 ㉤내 영혼의 밭소리 같은 것이다. 감히 농사라고는 할 수 없지만, 자연과의 행복한 합일이라고도 부를 수 없지만, 그 어둠과 불구에 힘입어 푸른 것들을 만나러 가곤 했다. 그들에게 물을 주고 돌아오는 물통은 언제나 비어 있다.

- 나희덕, 「반 통의 물」

안곡고등학교 (경기)

9. 뒷글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한 것은?

- ① 인물들 간의 대화를 통해 인물들 사이의 갈등을 제시하고 있다.
- ② 공간의 이동에 따라 서술자를 달리하여 독자의 흥미를 끌고 있다.
- ③ 다른 사람의 말을 인용함으로써 자신이 얻은 깨달음을 강조하고 있다.

을 강조하고 있다.

- ④ 비슷한 문장 구조의 반복을 통해 대상의 부정적 측면을 드러내고 있다.
- ⑤ 관용적 표현을 활용하여 전달하고자 하는 의미를 효과적으로 전달하고 있다.

안곡고등학교 (경기)

10. 다음을 바탕으로 이 글을 이해한 것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경험 1	당근이 자랄 수 있도록 숨아준 일	…㉠
경험 2	밭에 난 잡초를 뽑지 않아 밭에 풀이 무성해진 일	…㉡
경험 3	몸이 불편한데도 채소에 물을 주기 위해 애쓰는 할아버지를 본 일	…㉢

- ① ㉠에서 글쓴이는 인간의 속성과 자연의 속성을 연결 짓고 있다.
- ② ㉠에서 글쓴이는 식물 사이에 적절한 거리가 필요함을 깨달고 있다.
- ③ ㉡에서 글쓴이는 땅의 본래적 질서가 선택보다는 공존임을 인식하고 있다.
- ④ ㉢에서 글쓴이는 게으른 자신의 모습을 반성하며 개선의 의지를 드러내고 있다.
- ⑤ ㉢에서 텃밭에 물을 주시는 할아버지의 모습을 통해 이 글의 제목이 ‘반 통의 물’인 이유가 드러나 있다.

안곡고등학교 (경기)

11. 뒷글의 주제를 고려할 때, ㉠~㉤ 중 내포하고 있는 의미가 다른 하나는?

- ① ㉠
- ② ㉡
- ③ ㉢
- ④ ㉣
- ⑤ ㉤

4-(1) 음운 변동

① 음운의 변동

- ① 개념: 어떤 음운이 놓이는 환경에 따라 발음이 달라지는 현상
- ② 음운 변동이 나타나는 이유: 발음을 좀 더 쉽게 하고, 표현을 명료하게 하여 뜻을 좀 더 분명하게 전달하기 위해서 나타남.

② 음운 변동의 종류

교체	한 음운이 다른 음운으로 바뀌는 현상	■ + ● → ■ + ▲
탈락	원래 있던 음운이 없어지는 현상	■ + ● → ■ ○
첨가	없던 음운이 새로 더해지는 현상	■ + ● → ■ + ▲ + ●
축약	두 음운이 합쳐져서 제3의 한 음운으로 바뀌는 현상	■ + ● → ▲

* 음운이 바뀌지 않는 부분: ■, ● / 음운이 바뀌는 부분: ■, ●, ▲

③ 음운 변동의 예시

■ 교체

종류	내용
비음화, 유음화	<p>① 비음화: 비음이 아닌 음운이 비음 'ㄴ, ㄹ, ㅇ'의 영향을 받아 비음으로 바뀌어 발음되는 현상</p> <p>(1) 음절의 끝소리 'ㄱ, ㄷ, ㅂ'이 뒤에 오는 비음 'ㄴ, ㄹ' 앞에서 비음인 [ㄴ, ㄹ, ㅇ]으로 바뀌어 발음됨. 예) 국물[궁물]</p> <p>(2) 비음 뒤에서 유음이 비음으로 바뀌어 발음됨. 능력[능녁], 남루[남:누]</p> <p>(3) 음절의 끝소리 'ㄱ, ㄷ, ㅂ' 뒤의 유음이 비음으로 바뀌고, 바뀐 비음을 닮아서 앞의 'ㄱ, ㄷ, ㅂ'이 비음으로 바뀌어 발음됨. 백로[뱅노], 몇 리[면니]</p> <p>② 유음화: 비음인 'ㄴ'이 앞뒤에 오는 유음 'ㄹ'의 영향을 받아 'ㄹ'로 바뀌어 발음됨. 설날[설:랄], 신라[실라]</p>
구개음화	<p>받침이 'ㄷ, ㅌ'인 형태소가 모음 'ㅣ'나 반모음 'ㅚ'로 시작하는 형식 형태소와 만나면 [ㅈ, ㅊ]으로 바뀌어 발음되는 현상</p> <p>예) 말이[마지], 굳이[구지]</p>
원소리되기 (경음화)	<p>예사소리가 원소리로 바뀌어 발음되는 현상</p> <p>(1) 음절의 받침 'ㄱ, ㄷ, ㅂ' 뒤에서 'ㄱ, ㄷ, ㅂ, ㅅ, ㅈ'이 원소리로 바뀌어 발음됨. 예) 국가[국까]</p> <p>(2) 웅언이 활용할 때 어간의 받침 'ㄴ, ㄹ' 뒤에서 어미의 자음 'ㄱ, ㄷ, ㅅ, ㅈ'이 원소리로 바뀌어 발음됨. 신지[신:찌]</p> <p>(3) 한자어의 받침 'ㄹ' 뒤에서 'ㄷ, ㅅ, ㅈ'이 원소리로 바뀌어 발음됨. 물질[물짚]</p>

4-(1) 음운 변동

■ 탈락

종류	내용
모음 탈락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원래 있던 모음이 'ㅏ/ㅑ'로 시작하는 어미 앞에서 탈락하는 현상 • 결과가 실제 표기에도 반영됨. <p>(1) 'ㄴ' 탈락: 어미 '-아/-어' 앞에서 어간의 'ㄴ'이 탈락함. ㉠ 잠그- + -아 → 잠가</p> <p>(2) 동음 탈락: 모음 'ㅏ/ㅑ'로 끝나는 어간 뒤에 모음 'ㅏ/ㅑ'로 시작하는 어미가 오면 그중 하나가 탈락함. 가 + -아라 → 가라</p>
두음 법칙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한자음의 경우, 일부 소리가 단어의 첫머리에 발음되는 것을 꺼려 다른 소리로 발음되는 현상 • 결과가 실제 표기에도 반영됨. <p>(1) 한자음 '녀, 뇨, 뉴, 니'가 단어의 첫머리에 오면 'ㄴ'이 탈락함. ㉠ 여자(女子)</p> <p>(2) 한자음 '라, 러, 레, 료, 류, 리'가 단어의 첫머리에 올 때 'ㄹ'이 탈락함. 양심(良心)</p> <p>(3) 한자음 '라, 래, 로, 뢰, 루, 르'가 단어의 첫머리에 오면 'ㄹ'이 'ㄴ'으로 교체됨. 내일(來日)</p>

■ 첨가

종류	내용
반모음 첨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모음으로 끝난 용언 어간에 모음으로 시작된 어미가 결합될 때에 모음 충돌을 막기 위해 반모음 'ㅍ'가 덧붙는 현상 • 음운의 음가대로 발음하는 것이 원칙이나, 반모음 'ㅍ'를 첨가하여 발음하는 것도 허용됨. <p>㉠ 피- + -어 → 피어[피어/피어]</p>

■ 축약

종류	내용
거센소리되기 (자음 축약)	<p>'ㅎ'이 예사소리와 만나 거센소리[ㅋ, ㅌ, ㅍ, ㅊ]로 발음되는 현상</p> <p>㉠ 놓고[노코], 축하[추카]</p>

모락고등학교 (경기)

1. <보기>에서 설명하는 음운 변동의 예로만 묶인 것은?

<보기>

음운 변동의 유형 중 특이한 것으로 축약을 들 수 있다. 축약은 'A'와 'B'라는 두 음운이 결합하여 'C'라는 제삼의 음운으로 줄어드는 음운 변동이다. 국어의 축약은 주로 'ㅎ'과 다른 자음이 결합할 때 일어난다.

- ① 잃고[일코], 많군[만쿤] ② 얹아[아나], 많지[만치]
- ③ 넣은[너은], 놓다[노타] ④ 많네[만네], 쌓은[싸은]
- ⑤ 쌓는[싼는], 앓고[안코]

모락고등학교 (경기)

2. 밑줄 친 말 중에서 <보기>의 설명에 해당하는 단어로 적절한 것은?

<보기>

음운 변동의 유형 중 탈락의 한 종류로서, 두 개의 모음이 만났을 때 그 중 한 개의 모음이 탈락하는 현상을 모음 탈락이라고 한다.

예 쓰- + -어 → [써], 푸- + -아서 → [퍼서]

- ① 눈을 떠 보니 집이었지 뭐야.
- ② 눈에 띄게 네 얼굴이 수척해졌어.
- ③ 결국 만형이 모든 일을 처리해야 돼.
- ④ 이거 마음에 들면 내가 가져도 괜찮아.
- ⑤ 공책을 어디에 뒀는지 몰라 한참 찾았어.

모락고등학교 (경기)

3. <보기>의 ㉠, ㉡에 해당하는 예를 바르게 짝지은 것은?

<보기>

'ㄴ'이 앞이나 뒤에 오는 유음 'ㄹ'의 영향을 받아 'ㄹ'로 바뀌어 소리 나는 현상을 유음화라고 한다. 유음화는 음운이 동화되는 방향에 따라 ㉠순행적 유음화와 ㉡역행적 유음화로 나눌 수 있다.

- | | |
|-----------|-----------|
| ㉠ 순행적 유음화 | ㉡ 역행적 유음화 |
| ① 물난리 | 종로 |
| ② 광한루 | 대관령 |
| ③ 전라도 | 논란 |
| ④ 줄넘기 | 강릉 |
| ⑤ 실내 | 탄력 |

모락고등학교 (경기)

4. <보기1>과 <보기2>를 참고로 학생들이 된소리되기 현상을 탐구한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보기1>

된소리되기란, 예사소리 'ㄱ, ㄷ, ㅂ, ㅅ, ㅈ'이 앞의 소리에 영향을 받아 된소리인 'ㄱ, ㄷ, ㅃ, ㅅ, ㅉ'으로 바뀌어 소리 나는 현상이다.

<보기2>

표준발음법 제6장 된소리되기

제23항
받침 'ㄱ(ㄱ, ㅋ, ㆁ, ㄷ, ㄷ, ㄷ, ㄷ, ㄷ, ㄷ), ㄷ(ㄷ, ㅌ, ㅌ, ㅌ), ㅂ(ㅂ, ㅃ, ㅃ)' 뒤에 연결되는 'ㄱ, ㄷ, ㅂ, ㅅ, ㅈ'은 된소리로 발음한다.

예) 꽃고[꼰고], 넓죽하다[넙쭈카다]

제24항
어간 받침 'ㄴ(ㄴ), ㄹ(ㄹ)' 뒤에 결합되는 어미의 첫소리 'ㄱ, ㄷ, ㅂ, ㅅ, ㅈ'은 된소리로 발음한다.

예) 삼고[삼꼬], 꺾안다[꺾안따]

다만, 피동, 사동의 접미사 '-기-'는 된소리로 발음하지 않는다.

예) 안기다[안기다], 굶기다[굶기다]

제26항
한자어에서, 'ㄹ' 받침 뒤에 연결되는 'ㄷ, ㅂ, ㅅ'은 된소리로 발음한다.

예) 갈등[갈똥], 물질[물질]

제27항
관형사형 '-(으)ㄹ' 뒤에 연결되는 'ㄱ, ㄷ, ㅂ, ㅅ, ㅈ'은 된소리로 발음한다.

예) 할 것을[할꺼슬], 갈 데가[갈떼가]

- ① '깎아'가 [까까]로 발음되는 이유는 제23항에 따라 받침 'ㅌ'이 'ㄱ'으로 발음되어 뒤에 연결되는 'ㄱ'을 된소리로 만들기 때문이야.
- ② '더듬지'가 [더뎡찌]로 발음되는 것처럼 '감기다' 또한 제24항이 적용되어 [감끼다]로 발음해야 해.
- ③ 제24항에 따르면 표기상으로는 똑같이 '신고'라고 할 지라도 그 의미와 성격에 따라 [신포]라고 발음해야 하는 것과 [신고]라고 발음해야 하는 것으로 나눌 수 있어.
- ④ '넙똥글다'는 [넙똥글다]로 발음해야 하는데, 이는 받침 'ㄹ' 중에서 'ㄹ'만 남아 제26항이 적용되기 때문이야.
- ⑤ 사람들이 '내 것'이라는 말을 [내꺼]라고 발음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는 제27항에 따른 것이야.

4-(1) 음운 변동

모락고등학교 (경기)

5. <보기>의 ㉠~㉣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보기>
 ㉠ 협력 → [협녁] ㉡ 휴만 → [휴만]
 ㉢ 옷맵시 → [온맵씨]

- ① ㉠ : 인접한 자음의 특성에 동화되는 음운 변동이다.
- ② ㉡ : 음운 변동 후 음운의 수가 많아진 것은 아니다.
- ③ ㉢ : 2번의 음운 변동이 나타난다.
- ④ ㉠, ㉡, ㉢ : 비음이 아닌 음운이 비음 앞에서 비음으로 바뀌는 현상이다.
- ⑤ ㉠, ㉡, ㉢ : 표기와 발음이 달라지는 이유는 발음을 편하게 하기 위해서이다.

양재고등학교 (서울)

6. 다음은 문법 수업의 과정이다. 이 과정에서 ㉠~㉣에 들어갈 말을 차례대로 바르게 나열한 것은?

도 입	<p>• 선생님의 설명 : ‘굳이[구지], 끝이[끄치], 붙이다[부치다]’처럼 ‘ㄷ, ㅌ’이 모음 ‘ㅣ’를 만나면 ‘ㅈ, ㅊ’으로 바뀌는 현상을 ㉠ 라고 합니다. 그런데 ‘견디다[견디다], 티끌[티끌], 흠이불[흔이불]’ 등에서도 ‘ㄷ, ㅌ’이 모음 ‘ㅣ’를 만나지만 ‘ㅈ, ㅊ’로 발음되지 않습니다. 그 이유를 학습활동을 차례대로 풀어보면서 이해해 보도록 합시다.</p>				
전 개	<p>(1) 각 단어의 형태소를 분석해 보자.</p>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border-collapse: collapse; margin: 10px 0;"> <tr> <td style="width: 50%; text-align: center;">㉡음운 변동이 일어나는 경우</td> <td style="width: 50%; text-align: center;">㉣음운 변동이 일어나지 않는 경우</td> </tr> <tr> <td>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굳이=굳-+-이 • 끝이=끝+-이 • 붙이다=붙-+-이-+-다 </td> <td>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견디다=견디-+-다 • 티끌=티끌 • 흠이불=흠-+-이불 </td> </tr> </table> <p>(2) (1)을 통해 알 수 있는 음운 변동 환경을 정리해 보자. → ㉡에서는 ‘ㄷ, ㅌ’와 ‘ㅣ’가 ㉠에서 만나고, ㉣에서는 ‘흠이불’을 제외한 나머지의 경우 ‘ㄷ, ㅌ’와 ‘ㅣ’가 ㉢에서 만난다.</p> <p>(3) 모음 ‘ㅣ’가 속해 있는 형태소의 의미를 파악해 보자. → ㉡의 ‘-이’는 문법적인 의미를 가진 ㉢이고, ㉣의 ‘이불’은 구체적인 의미를 가진 ㉣이다.</p>	㉡음운 변동이 일어나는 경우	㉣음운 변동이 일어나지 않는 경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굳이=굳-+-이 • 끝이=끝+-이 • 붙이다=붙-+-이-+-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견디다=견디-+-다 • 티끌=티끌 • 흠이불=흠-+-이불
㉡음운 변동이 일어나는 경우	㉣음운 변동이 일어나지 않는 경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굳이=굳-+-이 • 끝이=끝+-이 • 붙이다=붙-+-이-+-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견디다=견디-+-다 • 티끌=티끌 • 흠이불=흠-+-이불 				
정 리	<p>• 선생님의 설명 : 위의 학습활동에서 살펴본 것처럼 ㉠ 현상은 형태소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공부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꼭 알아두시기 바랍니다.</p>				

- ① 구개음화/한 형태소/형태소 경계/형식 형태소/실질 형태소
- ② 구개음화/형태소 경계/한 형태소/실질 형태소/형식 형태소
- ③ 구개음화/형태소 경계/한 형태소/형식 형태소/실질 형태소
- ④ 거센소리되기/형태소 경계/한 형태소/실질 형태소/형식 형태소
- ⑤ 거센소리되기/형태소 경계/한 형태소/형식 형태소/실질 형태소

양재고등학교 (서울)

7. 다음 문장에서 음운의 변동이 일어나는 단어를 모두 찾아 <조건>에 맞게 표준 발음을 쓰시오.

나는 오늘 새로 산 운동화를 신고 지은이와 선릉역 서점에 갔는데 지하철을 잘못 타서 조금 늦게 서점에 도착했다.

<조건>
 작성 방법 : 국민[궁민]

양재고등학교 (서울)

8. <보기>의 ㉠~㉣의 밑줄 친 부분에 적용된 음운 변동이 동일하게 나타난 예가 아닌 것은?

<보기>

국어에는 음절의 끝소리 규칙, 비음화, 유음화, 된소리되기, 거센소리되기 등의 음운 변동이 있다.

- ㉠ 우리 누나는 법학과[버팍파]에 다니고 있다.
- ㉡ 이번 방학에 뜻하지[뜨타지] 않은 행운을 만났다.
- ㉢ 밥을 다 먹었는데[머건는데] 빵도 먹었다.
- ㉣ 친구들을 만나 반갑게 인사를 나눴다.[나눠따].
- ㉤ 마을 최고의 권력자[궐력자]는 촌장이었다.

- ① ㉠올해 입학식은 3월 2일이었다.
- ② ㉡이렇게 번듯한 가구를 왜 버리는지 모르겠다.
- ③ ㉢새로 이사 간 우리 집은 부엌만 크다.
- ④ ㉣수지가 나에게 꽃다발을 선물로 주었다.
- ⑤ ㉤촌장은 자신의 이익을 위해 공권력을 동원했다.

양재고등학교 (서울)

9. <보기>를 바탕으로 음운의 변동과 음운의 개수 변화를 바르게 설명한 것은?

<보기>

음운의 변동은 크게 네 가지로 나눌 수 있다. 어떤 음운이 다른 음운으로 바뀌는 ㉠교체, 어떤 음운이 없어지는 ㉡탈락, 새로운 음운이 생기는 ㉢첨가, 두 음운이 하나의 음운으로 합쳐지는 ㉣축약이 그것이다. 음운의 변동 전후로 음운의 개수가 달라지기도 하는데 ‘교체’는 개수의 변화가 없고 ‘탈락’과 ‘축약’은 음운의 개수가 하나 줄어들며 ‘첨가’는 음운의 개수가 하나 늘어난다.

- ① ‘배춧잎[배춧님]’에서는 ㉠과 ㉡의 음운 변동이 일어나므로 음운의 개수가 1개 늘어났다.
- ② ‘줄넘기[줄럼기]’에서는 ㉠과 ㉡의 음운 변동이 일어나므로 음운의 개수가 1개 늘어났다.
- ③ ‘국화꽃[구과꼐]’에서는 ㉢과 ㉣의 음운 변동이 일어나므로 음운의 개수가 1개 늘어났다.
- ④ ‘달다리[닥따리]’에서는 ㉠과 ㉣의 음운 변동이 일어나므로 음운의 개수에 변화가 없다.
- ⑤ ‘편입학[피니팍]’에서는 ㉢과 ㉣의 음운 변동이 일어나므로 음운의 개수에 변화가 없다.

양재고등학교 (서울)

10. <보기>를 참고할 때 동화의 방향이 다른 것은?

<보기>

자음 동화는 음절의 끝 자음이 그 뒤에 오는 자음과 만날 때 어느 한쪽이 다른 쪽을 닮거나 양쪽 모두 비슷한 소리로 바뀌는 현상이다. 대표적인 자음 동화 현상에는 ‘비음화, 유음화’가 있다.

이러한 자음 동화 현상은 변화 방향에 따라 ‘순행 동화’와 ‘역행 동화’가 있다. ‘순행 동화’란 인접해 있는 두 자음 중에서 뒤의 소리가 앞의 소리를 닮는 것이고, ‘역행 동화’란 인접해 있는 두 자음 중에서 앞의 소리가 뒤의 소리를 닮는 것이다.

- ① 광한루 ② 흙만 ③ 대관령 ④ 달나라 ⑤ 굽는

양재고등학교 (서울)

11. <보기>의 ㉠~㉣에 해당하는 단어로 적절한 것을 고르면?

<보기>

된소리되기는 ‘ㄱ, ㄷ, ㅂ, ㅅ, ㅈ’과 같은 예사소리가 된소리로 바뀌어 소리 나는 현상으로, 다음과 같은 환경에서 된소리로 발음된다.

- ㉠ 받침 ‘ㄱ(ㄱ, ㅋ, ㆁ, ㄷ, ㄷ, ㅈ, ㅈ, ㅉ), ㅂ(ㅍ, ㅃ, ㅍ, ㅃ)’ 뒤에 ‘ㄱ, ㄷ, ㅂ, ㅅ, ㅈ’가 올 때
- ㉡ 어간 받침 ‘ㄴ(LX), ㄹ(ㄹ)’ 뒤에 첫소리 ‘ㄱ, ㄷ, ㅂ, ㅅ, ㅈ’인 어미가 올 때
- ㉢ 한자어에서, ‘ㄱ’ 받침 뒤에 ‘ㄷ, ㅅ, ㅈ’이 올 때
- ㉣ 어간 받침 ‘ㄹ, ㄹ’ 뒤에 첫소리 ‘ㄱ, ㄷ, ㅂ, ㅅ, ㅈ’인 어미가 올 때

- | | | | |
|--------|------|--------|----|
| ㉠ | ㉡ | ㉢ | ㉣ |
| ① 책상 | 신다 | 절기(節氣) | 흙다 |
| ② 국밥 | 젊다 | 발전(發展) | 넓다 |
| ③ 깎두기 | 달다 | 전등(前燈) | 밝다 |
| ④ 압박감 | 끼었다 | 설계(設計) | 핥다 |
| ⑤ 야단법석 | 뛰어넘다 | 결과(結果) | 웁다 |

신송고등학교 (인천)

12. (가)의 ㉠, ㉡에 들어갈 표준 발음을 (나)를 참고하여 바르게 쓰시오.

(가) 학생의 탐구 내용
 지난 시간의 문법탐구 모둠활동에서 같은 단어가 주어진 환경에 따라 다르게 발음되는 경우를 공부했어. 이번 시간에 배운 표준 발음법에 따라 이 단어들의 올바른 발음을 생각해 보니, ‘담은’은 (㉠), ‘담 앞에’는 이어서 발음하면 (㉡)(으)로 발음해야 해.

(나) 표준 발음법 조항
 [제14항]
 겹받침이 모음으로 시작된 조사나 어미, 접미사와 결합되는 경우에는, 뒤엣것만을 뒤 음절 첫소리로 옮겨 발음한다. (이 경우 ‘ㅅ’은 된소리로 발음함.)
 [제15항]
 받침 뒤에 모음 ‘ㅏ, ㅑ, ㅓ, ㅕ, ㅗ, ㅛ’들로 시작되는 실질 형태소가 연결되는 경우에는, 대표음으로 바꾸어서 뒤 음절 첫소리로 옮겨 발음한다.

신송고등학교 (인천)

13. <보기>를 바탕으로 음운변동을 바르게 이해한 것은?

<보기>

음운의 변동은 크게 네 가지로 나눌 수 있다. 어떤 음운이 다른 음운으로 바뀌는 ㉠교체, 어떤 음운이 없어지는 ㉡탈락, 새로운 음운이 생기는 ㉢첨가, 두 음운이 하나의 음운으로 합쳐지는 ㉣축약이 그것이다.

- ① 달혀[다쳐]에서는 ㉣의 음운현상만 일어난다.
- ② 꽃밭이[꽃빠치]에서는 ㉠의 음운현상만 일어난다.
- ③ 술하다[수타다]에서는 ㉣의 음운현상만 일어난다.
- ④ 값이[갑씨]에서는 ㉠과 ㉡의 음운변동이 일어난다.
- ⑤ 맨입[맨닙]에서는 ㉠과 ㉡의 음운현상이 일어난다.

신송고등학교 (인천)

14. <보기>의 음운 변동을 분석한 것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보기>

㉠ 안팍 → [안팍], 부역 → [부역]
 ㉡ 법학 → [버팍], 날고 → [나코]
 ㉢ 꽃눈 → [꼰눈], 뱌는 → [뱌는]

- ① ㉠은 음절의 종성에 놓인 자음이 바뀌는 변동이다.
- ② 음운변동의 결과 음운의 개수에 변화가 있는 것은 ㉡뿐이다.
- ③ ㉢은 조음위치에 동화된 역행적 비음화 양상을 보여준다.
- ④ ㉢에는 ㉠과 동일한 음운변동 양상이 포함되어 있다.
- ⑤ ㉠과 ㉡의 변동이 모두 일어난 예로 옷 한 벌 → [오 탄벌]을 들 수 있다.

신송고등학교 (인천)

15. <보기>의 음운변동을 설명한 내용으로 적절한 것은?

<보기>

이번에는 밭이랑에 토마토와 옥수수를 심었다.

음운현상	㉠	㉡	㉢
밭이랑	[㉠]	[㉡]	[㉢]

- | | | |
|--------------------|--------------|---------------|
| ㉠ | ㉡ | ㉢ |
| [㉠] | [㉡] | [㉢] |
| ① 음절의 끝소리
[밭이랑] | ㉠첨가
[밭니랑] | 구개음화
[바치랑] |

- | | | |
|--------------------|-----------------|---------------|
| ② ㉠첨가
[밭니랑] | 비음화
[반니랑] | 구개음화
[바치랑] |
| ③ 음절의 끝소리
[밭이랑] | ㉠첨가
[반니랑] | 비음화
[반니랑] |
| ④ 음절의 끝소리
[밭이랑] | 자음축약
[바디랑] | 구개음화
[바치랑] |
| ⑤ ㉠첨가
[밭니랑] | 자음군단순화
[반니랑] | 비음화
[반니랑] |

금촌고등학교 (경기)

16. <보기>를 <자료>의 단어들에 적용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보기>

비음화에 해당하는 것은 다음의 세 가지이다.

첫째, ㉠비음 '㉠, ㉡'의 앞에서 파열음 'ㅂ, ㉢, ㉣'이 비음 '㉠, ㉡, ㉢'으로 바뀌는 현상이고, 둘째, ㉣'㉠, ㉢'의 뒤에서 '㉣'이 비음 '㉡'으로 바뀌는 현상이다. 마지막으로 ㉣'ㅂ, ㉢, ㉣'과 '㉣'이 만나면 '㉣'이 '㉡'이 되고, 이렇게 변해서 된 '㉡'을 닮아서 그 앞의 'ㅂ, ㉢, ㉣'이 각각 비음 '㉠, ㉡, ㉢'이 되는 현상이다.

한편, 유음화는 ㉣유음 '㉣'의 앞뒤에서 '㉡'이 '㉣'으로 변하는 현상이다.

<자료>

침략, 백로, 권력, 만머느리, 물난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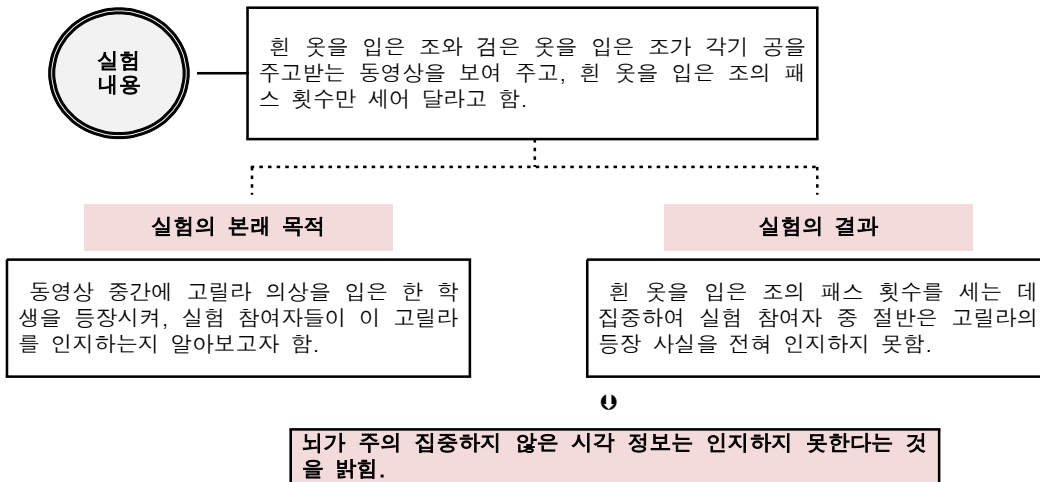
- ① '만머느리'은 ㉠의 규칙에 따라 [만머느리]로 발음해야겠군.
- ② '침략'은 ㉡의 규칙에 따라 [침략]으로 발음해야겠군.
- ③ '백로'은 ㉢의 규칙에 따라 [백노]로 발음해야겠군.
- ④ '권력'은 ㉣, ㉤의 규칙에 따라 [궐력]으로 발음해야겠군.
- ⑤ '물난리'는 ㉤의 규칙이 두 번 적용되어 [물랄리]로 발음해야겠군.

5-(1) 고릴라를 못 본 이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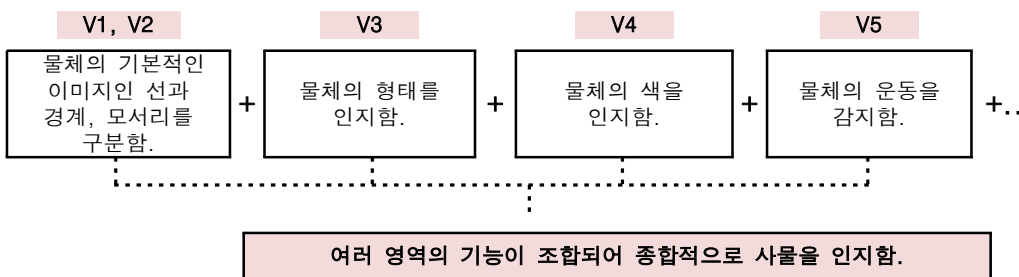
●핵심 정리

갈래	설명문
성격	사실적, 과학적
제재	뇌의 정보 처리 방식.
주제	주의 집중한 시각적 정보만 받아들이는 뇌의 특성
특징	<ul style="list-style-type: none"> •핵심 개념과 관련된 실험을 소개하여 독자의 이해를 도움. •적절한 예와 비유를 활용하여 어려운 과학적 개념을 쉽게 풀이함.

1. 고릴라 실험의 내용과 의의



2. 시각 피질의 여러 영역과 역할



㉠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가) 사람은 오감(五感), 즉 시각, 청각, 후각, 미각, 촉각을 통해 세상을 인식한다. 이 다섯 가지의 감각 중 가장 많은 역할을 하는 것은 시각으로, 사람의 습득하는 정보의 80퍼센트는 오로지 시각에 의존한 정보들이다. 대부분의 정보를 시각으로 받아들이면서 우리는 자연스럽게 시각의 능력을 높이 신뢰하게 된다. ㉡그런데 과연 눈으로 보는 정보들은 다 믿을 수 있는 것일까? 우리 눈에 보이는 것은 정말 '눈에 보이는 대로'만 존재하는 것일까?

(나) 1999년 신경 과학 분야의 국제 학술지인 「퍼셉션」에 「우리 가운데에 있는 고릴라」라는 제목으로 실린 논문이 있다. 당시 하버드 대학교 심리학과 대니얼 사이먼스의 크리스토퍼 차브리스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흥미로운 실험을 하였다. 그들은 흰옷과 검은 옷을 입은 학생 여러 명을 두 조로 나누어 같은 조끼리만 이리저리 농구공을 주고받게 하고 그 장면을 동영상으로 찍었다. 그리고 이를 사람들에게 보여 주고 이렇게 주문하였다. “검은 옷을 입은 조는 무시하고 흰옷을 입은 조의 패스 횟수만 세어 주세요.” 라고 동영상은 1분 남짓이었으므로 대부분의 사람들은 어렵지 않게 흰옷을 입은 조의 패스 횟수를 맞히는 데 성공하였다. 그리고 그들 중 절반은 왜 이런 간단한 실험을 하는지 목적을 파악하지 못해 고개를 가웃거렸다.

(다) ㉢사실 실험의 목적은 따로 있었다. 실험 참가자들에게 보여준 동영상 중간에는 고릴라 의상을 입은 한 학생이 걸어 나와 가슴을 치고 퇴장하는 장면이 무려 9초에 걸쳐 등장한다. 재미있는 사실은 동영상을 본 사람들 중 절반은 자신이 고릴라를 보았다는 사실을 전혀 인지하지 못했다는 것이다. 나머지 절반은 고릴라를 알아보고 황당하다는 반응을 보였다. 심지어 고릴라를 인지하지 못한 이들에게 고릴라의 등장 사실을 알려주고 동영상을 다시 보여 주자, 분명 먼젓번 동영상에서는 고릴라가 등장하지 않았다고 말하는 사람도 있었다. 그러면서 실험자가 자신을 놀리려고 다른 동영상을 보여 준 것이 아니냐는 의심을 하기도 하였다. 도대체 왜 이들은 고릴라를 보지 못한 것일까?

(라) 대니얼 사이먼스와 크리스토퍼 차브리스는 이를 ‘무주의 맹시’라고 칭했다. 이는 시각이 손상되어 물체를 보지 못하는 것과는 달리, 물체를 보면서도 인지하지 못하는 경우를 말한다. 두 눈을 멀쩡히 뜨고 있는데 보지 못한다고? 정말 황당한 소리이다. 하지만 우리는 늘 ㉣이런 경험을 한다. 실연한 뒤에는 유난히 행복한 연인들의 모습이 눈에 자주 띄고, 오랜만에 만난 아버지의 늙은 모습에 마음이 찢었던 날에는 유독 나이 든 어른들의 모습이 눈에 들어온다. 그런 장면들은 어쩌나 그렇게 내 마음이 요동칠 때에 잘 맞춰 나타나는지. 하지만 당연하게도 세상이 내 맘에 맞게 움직여 줄 리는 없다.

(마) ㉤고릴라는 어디에나, 언제나 존재한다. 다만 내가 이를 인지하지 못했을 뿐이다. 그들은 갑자기 새롭게 나타난 것이 아니라 평소에도 늘 존재하였다. 하지만 평소에는 주의 깊게 보지 않아서 인식하지 못했던 것을 비로소 오늘에서야 뇌가 인지한 것이다.

(바) 그렇다면 우리는 어떤 경로로 세상을 보는 것일까? 우리의 신체는 눈만이 빛을 인식하고 받아들일 수 있게 진화해 왔다. 그래서 눈이 손상되거나 다른 이유로 기능을 잃게 되면, 우리는 그 즉시 빛 한 점 없는 어둠 속에 갇히게 된다. 하지만 눈 자체가 세상을 인식하는 것은 아니다. 눈동자를 지나 눈알 안쪽으로 파고든 빛은 망막의 시각 세포에 의해 전기적 신호로 변환된다. 그리고 이 신호가 시신경을 통해 눈의 반대편, 즉 뒤통수 쪽에 위치한 뇌의 시각 피질로 들어가야만 우리가 비로소 세상을 ‘본다’(고 느낀다.)

(사) 시각 피질은 단일한 부위가 아니라 현재 밝혀진 것만 약 30개의 영역으로 구성된 복합적인 영역이다. 시각 정보를 가장 먼저 받아들이고 물체의 기본적인 이미징인 선과 경계, 모서리를 구분하는 V1, V2 영역을 비롯하여 형태를 구성하는 V3, 색을 담당하는 V4, 운동을 감지하는 V5, 그리고 이 밖의 다른 영역이 조합되어 종합적으로 사물을 인지한다.

(아) 뇌의 많은 영역이 오로지 시각이라는 감각 하나에 배정되어 있음에도, 세상은 워낙 변화무쌍하기 때문에 눈으로 받아들이는 모든 정보를 뇌가 빠짐없이 처리하기는 어렵다. 그래서 뇌가 선택한 전략은 선택과 집중, 적당한 무시와 엄청난 융통성이다. ㉥우리는 쥐의 꼬리만 봐도 벽 뒤에 숨은 쥐 전체의 모습을 그릴 수 있으며, 빨간색과 파란색의 스펙트럼만 봐도 그 색이 주는 이미지와 의미까지 읽어 낼 수 있다. 하지만 이것은 때와 장소, 현재의 관심 대상과 그 수준에 따라 달라진다. 앞에서 보았듯이 우리는 하나에 집중하면 다른 것은 눈에 뻘히 보여도 인식하지 못하고 지나칠 수 있다. 즉, 우리는 정말로 보고 싶은 것만 보고 보기 싫은 것에는 눈을 질끈 감는 것이다.

(자) 감각 기관으로 들어오는 정보를 고스란히 받아들이지 않고 제 입맛에 맞는 부분만 편식하는 것은 뇌의 보편적인 특성으로, 다른 감각도 마찬가지이다. 그러니까 엄마의 잔소리를 흘려듣는 십 대 아이의 귀에 달린 엄청난 여과 능력은 일부러 그러는 것이 아니라, 무의식적으로 일어나는 자연스러운 결과일 수 있다. 따라서 눈앞에서 판전을 피우는 아이의 귀에, 아니 뇌에 소리를 흘려 넣고 싶다면, 일단은 달콤한 말로 시작해서 집중시키는 것이 그나마 효과적이다. 눈앞에 뻘히 보이는 고릴라를 보지 못했던 사람들은 눈이 잘못되거나 얼빠진 것이 아

안곡고등학교 (경기)

6. 윗글의 주제와 내용을 고려할 때, ㉠이 의미하는 바가 무엇인지 서술하시오.

㉡ 다음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사람은 오감(五感), 즉 시각, 청각, 후각, 미각, 촉각을 통해 세상을 인식한다. 이 다섯 가지의 감각 중 가장 많은 역할을 하는 것은 시각으로, 사람이 습득하는 정보의 80퍼센트는 오로지 시각에 의존한 정보들이다. 대부분의 정보를 시각으로 받아들이면서 우리는 자연스럽게 시각의 능력을 높이 신뢰하게 된다. 그런데 과연 눈으로 보는 정보들은 다 믿을 수 있는 것일까? 우리 눈에 보이는 것은 정말 '눈에 보이는 대로'만 존재하는 것일까?

대니얼 사이먼스와 크리스토퍼 차브리스는 이를 '(㉠)'라고 칭했다. 이는 시각이 손상되어 물체를 보지 못하는 것과는 달리, 물체를 보면서도 인지하지 못하는 경우를 말한다. 두 눈을 멀쩡히 뜨고 있는데 보지 못한다고? 정말 황당한 소리이다. 하지만 우리는 늘 이런 경험을 한다. 실연한 뒤에는 유난히 행복한 연인들의 모습이 눈에 자주 띄고, 오랜만에 만난 아버지의 늙은 모습에 마음이 찢었던 날에는 유독 나이 든 어른들의 모습이 눈에 들어온다. 그런 장면들은 어쩌나 그렇게 내 마음이 요동칠 때에 잘 맞춰 나타나는지. 하지만 당연하게도 세상이 내 맘에 맞게 움직여 줄 리는 없다.

고릴라는 어디에나, 언제나 존재한다. 다만 내가 이를 인지하지 못했을 뿐이다. 그들은 갑자기 새롭게 나타난 것이 아니라 평소에도 늘 존재하였다. 하지만 평소에는 주의 깊게 보지 않아서 인식하지 못했던 것을 비로소 오늘에서야 뇌가 인지한 것이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떤 경로로 세상을 보는 것일까? 우리의 신체는 눈만이 빛을 인식하고 받아들일 수 있게 진화해 왔다. 그래서 눈이 손상되거나 다른 이유로 기능을 잃게 되면, 우리는 그 즉시 빛 한 점 없는 어둠 속에 갇히게 된다. 하지만 눈 자체가 세상을 인식하는 것은 아니다. 눈동자를 지나 눈알 안쪽으로 파고든 빛은 망막의 시각 세포에 의해 전기적 신호로 변환된다. 그리고 이 신호가 시신경을 통해 눈의 반대편, 즉 뒤통수 쪽에 위치한 뇌의 시각 피질로 들어가야만 우리가 비로소 세상을 '본다'(고 느낀다).

시각 피질은 단일한 부위가 아니라 현재 밝혀진 것만 약 30개의 영역으로 구성된 복합적인 영역이다. 시각 정보를 가장 먼저 받아들이고 물체의 기본적인 이미지인 선과 경계, 모서리를 구분하는 V1, V2 영역을 비롯하여 형태를 구성하는 V3, 색을 담당하는 V4, 운동을 감지하는 V5, 그리고 이 밖의 다른 영역이 조합되어 종합적으로 사물을 인지한다.

이들은 각각 따로따로 의미 있는 존재가 아니다. 여러 개의 약기가 모여 각자가 정확한 순간에 정확한 음을 연

주해야 제대로 된 음악을 전할 수 있는 오케스트라처럼, 모든 영역이 각자의 역할에 맞게 일시에 조율되어야 세상을 바라볼 수 있다. 같은 피아니스트가 같은 곡을 동일하게 연주해도 피아노 건반이 몇 개 사라지거나 음이 제대로 조율되지 않으면 결과물이 달라지는 것처럼, 우리의 눈이 같은 것을 보더라도 시각 피질의 각 영역이 제대로 조율되지 않으면 세상을 갈게 볼 수 없다.

예를 들어 시각 피질의 V4 영역이 제 기능을 하지 못하면 색맹이 아니었던 사람도 세상이 흑백으로 보이며, V5 영역이 손상되면 질주하는 자동차를 보아도 그것이 느리게 움직이는 것처럼 보인다.

뇌의 많은 영역이 오로지 시각이라는 감각 하나에 배정되어 있음에도, 세상은 워낙 변화무쌍하기 때문에 눈으로 받아들이는 모든 정보를 뇌가 빠짐없이 처리하기는 어렵다. 그래서 뇌가 선택한 전략은 선택과 집중, 적당한 무시와 엄청난 융통성이다. 우리는 쥐의 꼬리만 봐도 벽 뒤에 숨은 쥐 전체의 모습을 그릴 수 있으며, 빨간색과 파란색의 스펙트럼만 봐도 그 색이 주는 이미지와 의미까지 읽어 낼 수 있다. 하지만 이것은 때와 장소, 현재의 관심 대상과 그 수준에 따라 달라진다. 앞에서 보았듯이 우리는 하나에 집중하면 다른 것은 눈에 뻘히 보여도 인식하지 못하고 지나칠 수 있다. 즉, 우리는 정말로 보고 싶은 것만 보고 보기 싫은 것에는 눈을 질끈 감는 것이다.

감각 기관으로 들어오는 정보를 고스란히 받아들이지 않고 제 입맛에 맞는 부분만 편식하는 것은 뇌의 보편적인 특성으로, 다른 감각도 마찬가지이다. 그러니까 엄마의 잔소리를 흘려듣는 십 대 아이의 귀에 달린 엄청난 여과 능력은 일부러 그러는 것이 아니라, 무의식적으로 일어나는 자연스러운 결과일 수 있다. 따라서 눈앞에서 만전을 피우는 아이의 귀에, 아니 뇌에 소리를 흘려 넣고 싶다면, 일단은 달콤한 말로 시작해서 집중시키는 것이 그나마 효과적이다. 눈앞에 뻘히 보이는 고릴라를 보지 못했던 사람들은 눈이 잘못되거나 얼빠진 것이 아니라, 집중하지 않은 시각적 정보는 은근슬쩍 뭉개 버리는 지극히 자연스러운 뇌를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우리의 뇌는 이런 식으로 세상을 본다. 있어도 보지 못하거나 잘못 보는 경우도 많다. 그러므로 우리가 모든 것을 다 볼 수 없다는 사실을 제대로만 인정한다면, 서로 시각이 다른 현실에서 내 눈으로 본 것만이 옳다며 핏대를 세우거나 서로를 헐뜯는 일은 줄어들 것이다.

- 이은희, 「고릴라를 못 본 이유」

상명고등학교 (서울)

7. 다음 중, 윗글의 서술상 특징으로 옳은 것끼리 묶인 것은?

- ㄱ. 질문을 던지고 답하는 방식으로 내용을 전개하고 있다.
- ㄴ. 구체적인 예시를 제시해서 핵심 개념에 대한 이해를 돕고 있다.

- ㄷ. 공신력 있는 기관의 통계자료를 인용하여 글쓴이의 주장에 신뢰성을 더하고 있다.
 ㄹ. 설명 대상과 유사한 속성을 가진 다른 대상을 가져와 그 공통점과 차이점을 견주고 있다.
- ① ㄱ, ㄴ ② ㄱ, ㄷ
 ③ ㄱ, ㄹ ④ ㄴ, ㄷ
 ⑤ ㄷ, ㄹ

상명고등학교 (서울)

8. 윗글을 통해 알 수 있는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고릴라는 어디에나, 언제나 존재한다.’에서 ‘고릴라’는 보았는데도 인지하지 못한 대상을 의미한다.
 ② 시각 피질의 V1, V2 영역이 손상되면 모서리의 경계를 인식할 수 없다.
 ③ 글쓴이는 오케스트라 연주와 시각 피질 각 영역의 조율이 유사하다고 보았다.
 ④ ‘선택과 집중’은 시각뿐 아니라 다른 감각에도 두루 적용되는 뇌의 일반적 특성이다.
 ⑤ 글쓴이는 우리가 본 것은 믿을 수 없기 때문에, 집중력이 좋은 사람과 의견을 신뢰하라고 주장하고 있다.

상명고등학교 (서울)

9. <보기>는 윗글을 읽으며 학생이 사용한 읽기 전략을 나타낸 표이다. 적절하지 않은 것은?

<보기>	
읽기 전	㉠ ‘고릴라를 못 본 이유’라는 제목의 의미는 무엇인가? 덩치가 큰 고릴라를 왜 보지 못했다는 것일까?
읽기 중	㉡ 글을 전체적으로 훑어보니 ‘시각’, ‘고릴라’, ‘뇌’라는 단어가 많이 나오네. 이 글은 어떤 내용일까?
	㉢ 눈알로 들어온 빛이 어떻게 전기적 신호로 변환되는 것일까? 인터넷 검색을 통해 더 알아보자.
읽기 후	㉣ ‘뇌가 선택한 전략은 선택과 집중, 적당한 무시와 엄청난 융통성’이라는 부분은 중요하니까 밑줄을 그어두자.
	㉤ 이 글을 읽은 다른 친구들과 이야기 하며 느낀 점을 공유해보자.

- ① ㉠ ② ㉡
 ③ ㉢ ④ ㉣
 ⑤ ㉤

상명고등학교 (서울)

10. 윗글의 [㉦]에 들어갈 개념을 아래를 참고하여 적으시오.

<실험심리학 용어사전>

[㉦] : 주의가 다른 곳에 있어서 눈이 향하는 위치의 대상이 작아지지 못하는 현상이나 상태.

상명고등학교 (서울)

11. 다음은 국어 숙제를 하기 위해 도서관에 간 영희의 생각이야. 잘 읽고, ㉧와 ㉨에 해당하는 독서방법을 각각 한 단어로 쓰시오.

오랜만에 도서관에 오니까 좋다. 나는 보통 집에서 혼자 책을 읽을 때 소리 내어 읽는 편이지만, 여기는 도서관이니까 ㉧소리를 내지 않고 읽어야겠어.

자, 국어 숙제가 일제강점기에 쓰인 단편 소설 세 편을 요약해보는 거였지? 내가 고른 소설들을 처음부터 끝까지 다 읽을 필요는 없겠어. 책에서 ㉨필요한 부분만 골라서 읽어야지. 그리고 시간이 충분하니까 각 작품을 ㉣꼼꼼하게, 글의 내용을 헤아리면서 천천히 읽자.

㉧	
㉨	
㉣	정독

안곡고등학교 (경기)

12. 윗글과 같은 글을 읽는 과정을 점검하기 위한 질문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글의 내용을 충분히 이해하며 읽었는가?
- ② 글의 내용을 예상하고 확인하며 읽었는가?
- ③ 궁금한 점을 스스로 질문하고 답하며 읽었는가?
- ④ 읽기 목적에 어울리는 방법을 사용하며 읽었는가?
- ⑤ 글쓴이의 주장과 그 근거의 적절성을 판단하며 읽었는가?

안곡고등학교 (경기)

13. 윗글의 전개방식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질문을 던지며 화제를 전환하고 있다.
- ② 독자의 반응을 예측하고 그에 공감하고 있다.
- ③ 설명 대상을 다른 대상에 빗대어 설명하고 있다.
- ④ 구체적 예를 들어 설명하여 독자의 이해를 돕고 있다.
- ⑤ 유추의 방식을 활용하여 통해 두 대상의 차이점을 찾고 있다.

참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사람은 오감(五感), 즉 시각, 청각, 후각, 미각, 촉각을 통해 세상을 인식한다. 이 다섯 가지의 감각 중 가장 많은 역할을 하는 것은 시각으로, 사람이 습득하는 정보의 80퍼센트는 오로지 시각에 의존한 정보들이다. 대부분의 정보를 시각으로 받아들이면서 우리는 자연스럽게 시각의 능력을 높이 신뢰하게 된다. 그런데 과연 눈으로 보는 정보들은 다 믿을 수 있는 것일까? 우리 눈에 보이는 것은 정말 '눈에 보이는 대로'만 존재하는 것일까?

1999년 신경 과학 분야의 국제 학술지인 「퍼셉션」에 「우리 가운데에 있는 고릴라」라는 제목으로 실린 논문이 있다. 당시 하버드 대학교 심리학 교수 대니얼 사이먼스와 크리스토퍼 차브리스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흥미로운 실험을 하였다. 그들은 흰옷과 검은 옷을 입은 학생 여섯 명을 두 조로 나누어 같은 조끼리만 이리저리 농구공을 주고받게 하고 그 장면을 동영상으로 찍었다. 그리고 이를 사람들에게 보여 주고 이렇게 주문하였다. “검은 옷을 입은 조는 무시하고 흰옷을 입은 조의 패스 횟수만 세어주세요.” 라고 동영상은 1분 남짓이었으므로 대부분의 사람들은 어렵지 않게 흰옷을 입은 조의 패스 횟수를 맞히는 데 성공하였다. <중략>

사실 실험의 목적은 따로 있었다. 실험 참가자들에게 보여 준 동영상 중간에는 고릴라 의상을 입은 한 학생이 걸어 나와 가슴을 치고 퇴장하는 장면이 무려 9초에 걸쳐 등장한다. 재미있는 사실은 동영상을 본 사람들 중 절

반은 자신이 고릴라를 보았다는 사실을 전혀 인지하지 못했다는 것이다. 나머지 절반은 고릴라를 알아보고 황당하다는 반응을 보였다. 심지어 고릴라를 인지하지 못한 이들에게 고릴라의 등장 사실을 알려 주고 동영상을 다시 보여 주자, 분명 먼젓번 동영상에서는 고릴라가 등장하지 않았다고 말하는 사람도 있었다. 그러면서 실험자가 자신을 놀리려고 다른 동영상을 보여 준 것이 아니냐는 의심을 하기도 하였다. 도대체 왜 이들은 고릴라를 보지 못한 것일까?

대니얼 사이먼스와 크리스토퍼 차브리스는 이를 ⑥'주의 맹시'라고 칭했다. 이는 시각이 손상되어 물체를 보지 못하는 것과는 달리, 물체를 보면서도 인지하지 못하는 경우를 말한다. 두 눈을 멀쩡히 뜨고 있는데 보지 못한다고? 정말 황당한 소리이다. 하지만 우리는 늘 이런 경험을 한다. <중략>

고릴라는 어디에나, 언제나 존재한다. 다만 내가 이를 인지하지 못했을 뿐이다. 그들은 갑자기 새롭게 나타난 것이 아니라 평소에도 늘 존재하였다. 하지만 평소에는 주의 깊게 보지 않아서 인식하지 못했던 것을 비로소 오늘에서야 뇌가 인지한 것이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떤 경로로 세상을 보는 것일까? 우리의 신체는 눈만이 빛을 인식하고 받아들일 수 있게 진화해 왔다. 그래서 눈이 손상되거나 다른 이유로 기능을 잃게 되면, 우리는 그 즉시 빛 한 점 없는 어둠 속에 갇히게 된다. 하지만 눈 자체가 세상을 인식하는 것은 아니다. 눈동자를 지나 눈알 안쪽으로 파고든 빛은 망막의 시각 세포에 의해 전기적 신호로 변환된다. 그리고 이 신호가 시신경을 통해 눈의 반대편, 즉 뒤통수 쪽에 위치한 뇌의 시각 피질로 들어가야만 우리가 비로소 세상을 '본다'(고 느낀다.)

시각 피질은 단일한 부위가 아니라 현재 밝혀진 것만 약 30개의 영역으로 구성된 복합적인 영역이다. 시각 정보를 가장 먼저 받아들이고 물체의 기본적인 이미지인 선과 경계, 모서리를 구분하는 V1, V2 영역을 비롯하여 형태를 구성하는 V3, 색을 담당하는 V4, 운동을 감지하는 V5, 그리고 이 밖의 다른 영역이 조합되어 종합적으로 사물을 인지한다.

이들은 각각 따로따로 의미 있는 존재가 아니다. 여러 개의 악기가 모여 각자가 정확한 순간에 정확한 음을 연주해야 제대로 된 음악을 전할 수 있는 오케스트라처럼, 모든 영역이 각자의 역할에 맞게 일시에 조율되어야 세상을 바라볼 수 있다. 같은 피아니스트가 같은 곡을 동일하게 연주해도 피아노 건반이 몇 개 사라지거나 음이 제대로 조율되지 않으면 결과물이 달라지는 것처럼, 우리의 눈이 같은 것을 보더라도 시각 피질의 각 영역이 제대로 조율되지 않으면 세상을 같게 볼 수 없다.

예를 들어 시각 피질의 V4 영역이 제 기능을 하지 못하면 색맹이 아니었던 사람도 세상이 흑백으로 보이며, V5 영역이 손상되면 질주하는 자동차를 보아도 그것이 느리게 움직이는 것처럼 보인다.

운율을 형성하고 있다. 33.⑤ 34.③ 35.⑤ 36.⑤ 37.③ 38.㉠ 사랑하는 대상을 향한 순수한 마음 ㉡ 첫사랑을 겪고 난 후에 도달한 정신적 성숙 39.③ 40.③ 41.④ 42.⑤

3-(2) 아홉 켄레의 구두로 남은 사내

1.① 2.③ 3.⑤ 4.③ 5.⑤ 6.② 7.① 8.⑤ 9. (1)자신의 정체가 탄로난 것을 알고 마지막 자존심을 지키고 싶은 심정에서 한 말이다. (2)윗글에서는 '오 선생'이 서술자로 등장하여 주인공인 '권 씨'를 관찰하는 입장에서 이야기를 전달하고 있다. 따라서 '권 씨'의 심리가 구체적으로 전달되지 않는다. 반면 <보기>는 주인공인 '권 씨'가 서술자로 등장하여 자신의 심리와 태도를 독자에게 구체적으로 전달해 주고 있다. 10.② 11.① 12.㉠ 1인칭 관찰자 시점 ㉡ 심리 ㉢ 권 씨 13.⑤ 14.④ 15.⑤ 16.③ 17.⑤ 18.② 19.②⑤ 20.④ 21.(1) (나)는 1인칭 관찰자 시점, <보기>는 1인칭 주인공 시점이다. (2) 주인공의 내면과 심리가 더 잘 드러난다. 22.② 23.③ 24.③ 25.⑤ 26.강도(권 씨)를 안심시켜 편안하게 돌아가게 하려고 했으나, 도리어 그의 자존심을 상하게 하여 집을 나가게 한다. 27.(1) 찰스 램은 빈민가의 사람들에게 대해 동정과 연민을 쏟아 글과 인간이 일치된 삶을 살았으나, 찰스 디킨스는 빈민가의 어린이들에게 못되게 굴어 글과 인간이 일치되지 않았다. (2) '나'는 권 씨가 빌린 돈을 갚지 못할 것이라고 생각하여 그의 부탁을 거절한다. 28.② 29.③ 30.③ 31.② 32.⑤ 33.수술비를 빌리는 문제로 '권 씨'와 '나'가 갈등하고 있다. 34.① 35.② 36.③ 37.④ 38.④ 39.⑤ 40.⑤ 41.③ 42.② 43.④ 44. 위 글에서는 권 씨의 부재를 상징하고, <보기>의 내용을 고려해 볼 때 산업화와 도시화 속에서 소외된 개인의 비참한 처지를 상징하고 있다. 45.⑤ 46.④ 47.② 48.③ 49.'구두'는 '권 씨'가 소중하게 생각하는 대상으로, 그의 심리 상태를 암시하며, 지식인으로서의 '권 씨'의 자존심을 상징하는 소재이다.

3-(3) 결혼

1.④ 2.③ 3.③ 4.② 5.특징: 관객을 극에 참여시킨다. A에서의 관객의 역할: 소품을 빌려준다, B에서의 관객의 역할: 관객이 증인이 된다. 효과: 관객의 참여를 유도하여 무대와 객석의 경계를 허물고 관객의 몰입을 유도한다. 6.관객의 극 중 참여를 유도하여 관객의 집중도를 높이고, 관객이 극 중 상황에 친밀감을

느끼게 한다. 또한 극의 상황과 주제 의식을 관객에게 적극적으로 전달하는 효과가 있다. 7.⑤ 8.② 9.③ 10.① 11.② 12.⑤ 13.③ 14.③ 15.① 16.④ 17.② 18. 관객을 극에 참여시켜 작품의 주제 의식을 실감나게 체험할 수 있게 한다. 또한 관객이 극 중 상황에 친밀감을 느끼고 더욱 몰입하게 된다. 19.⑤ 20.① 21. ① 22.⑤ 23.③ 24.③ 25.③ 26.(1) 대사와 행동을 통해 인물의 심리를 간접적으로 드러낸다. (2) 서술자가 등장인물의 심리나 성격을 해설하거나 묘사한다. (3) 현재 시제로 사건을 표현한다. (4) 주로 과거 시제를 사용하여 사건을 표현한다. 27.①④ 28.①④ 29. ③ 30.① 31.③ 32.① 33.④ 34.② 35.⑤ 36.② 37.① 38.⑤ 39.⑤ 40.③ 41.뎀 42.⑤ 43.③ 44.④ 45.⑤ 46. ⑤ 47.③ 48.④ 49.③ 50.③ 51.④ 52.③ 53.① 54.극 갈래는 서사 갈래와 달리 서술자가 없다. 그리고 현재형의 문학이다.

3-(4) 반 통의 물

1.⑤ 2.③ 3.① 4.⑤ 5.② 6.① 7.③ 8.③ 9.⑤ 10.④ 11.③ 12.③ 13.① 14.③ 15.④ 16.② 17.③ 18.④ 19. ② 20.A: 적절한 거리 B:선택보다는 공존 21.② 22.⑤ 23.③ 24.④ 25.② 26.④ 27.사람이 먹을 수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 잡초와 채소를 구분하여 하나는 죽이고 하나는 살리는 것이 이른바 농사이다. 28.생명을 사랑하는 마음 29.③ 30.④ 31.④ 32.⑤ 33.⑤ 34.④ 35.② 36.③ 37.②

4-(1) 음운의 변동

1.① 2.① 3.⑤ 4.③ 5.③ 6.③ 7.신고[신고], 선풍역[설릉녁], 갓는데[간는데], 늦게[늦께], 도착했다[도차깜따] 8. ⑤ 9.① 10.④ 11.② 12.㉠ [달근] ㉡ [다가페] 13. ② 14.③ 15.③ 16.④ 17.② 18.② 19.말의 뜻을 구별해 주는 소리의 가장 작은 단위 20.③ 21.② 22. ② 23. ④ 24. ⑤ 25. 구개음화, 구개음화는 음절의 끝소리 ㄷ, ㅌ이 형식 형태소 'ㅣ'나 반모음 'ㅣ'를 만나 구개음인 'ㅈ', 'ㅊ'으로 바뀌는 현상이다. 26.③ 27.④ 28.⑤ 29.⑤ 30.(1) 타라, 모음 탈락 (2) 입학, 거센소리되기 31. (1) [침:낙] (2) 유음인 'ㄹ'이 (3) 비음 'ㄹ'의 뒤에서 (4) 비음 'ㄴ'으로 변하는 (5) 비음화 현상이다. 32.④ 33.① 34.④ 35.④ 36.② 37.⑤ 38.첨가 39.신고, 갑자기, 왔다 40.④ 41.② 42.④ 43.② 44.③ 45.① 46.⑤ 47.② 48.④ 49.① 50.② 51.② 52.③ 53. ④ 54.③ 55.① 56.⑤ 57.① 58.⑤ 59.⑤ 60.⑤ 61.③

4-(2) 한글 맞춤법

1.① 2.④ 3.⑤ 4.③ 5.④ 6.② 7.⑤ 8.살살히→ 살살이, 나뭇가지→나뭇가지, 싹둑싹둑→ 싹둑싹둑, 회전룰→ 회전울, 좇점→ 초점 9.⑤ 10.② 11.① 12.백분룰→ 백분울, 댓가→ 대가, 썰어야→ 썰야(씨어야) 13.② 14.⑤ 15.③ 16.⑤ 17.④ 18.⑤ 19.(1) 뒷말의 첫소리 모음 앞에서 'ㄴㄴ' 소리가 덧날 때 (2) ㉠ 빗물, 아랫마을 ㉡ 뒷일, 깻잎 20.④ 21.② 22.수만마리가→수만마리가, 선울→선울, 몹시→몹시, 앓은 체→앓은 채, 안된다→안 된다. 23.④ 24.③ 25.③ 26.④ 27.① 28.(1)어름→얼음 (2)어간에 '-음/-ㅁ'이 붙어서 명사로 된 것은 그 어간의 원형을 밝히어 적기 때문에 '얼음'으로 표기해야한다. 29.꺼져가는 불꽃처럼 사라질 것인가, 주사위를 한 번 더 던져 볼 것인가. 30. (1) 황금울→황금룰: '렬/룰'은 모음이나 'ㄴ' 받침 뒤에 오면 '열/울'로, 'ㄴ'이 아닌 받침 뒤에 오면 '렬/룰'로 적는다. (2)우유빛→우윳빛: 합성어를 이룰 때 뒷말이 된소리로 발음되면 사이시옷을 적는다. 31.(1)열일곱살, 수는 만 단위로 띄어 쓰며, '살'은 의존명사이므로 띄어 써야 한다. (2) 쓰는데, '-는데'는 연결어미이므로 붙여 써야 한다. 32.④ 33.① 34.⑤ 35.① 36.① 37.운동한v만큼v좋은v결과를v연기를v바랐지만v일등은커녕v꿀찌를v했다 38.1) 머거→ 먹어, 용언은 어간과 어미를 구별하여 적어야 한다. 2) 여기에서 부터→ 여기에서부터, 조사는 앞말에 붙여 써야 한다. 39.⑤ 40.⑤ 41.④ 42.㉠누나의 해쓱한 모습에 어머니께서도 걱정이 되셨나봐. ㉡누나, 짹짹한 음식은 몸에 해로워. ㉢어머니의 정이 듬뿍 담긴 반찬을 먹고 힘을 내길 바라. 43.② 44.② 45.잇몸-(4), 대가-(6) 46.몽둥그려→몽똥그려:㉠, 씹술한→씹쓸한:㉡ 47.④ 48.④ 49.③ 50.③ 51.② 52.③ 53.⑤ 54. (1)도라간다→돌아간다 (2)두 용언이 어울려 하나의 용언이 된 경우 앞말의 본래 의미가 유지되고 있으면 원형을 밝혀 적는다. 55.② 56.⑤ 57.줄넘기를v시작한v지v이틀째인데v겨우v열v개를v할v뿐이다. 58.⑤ 59.① 60.③ 61.④ 62.③ 63.① 64. ㄱ. 되요→돼요 ㄴ. 뵈요→ 뵈요 ㄷ: 순대국→ 순댓국 65.②

은 우리가 보려고 하는 것에만 집중하여, 눈 23.① 24.⑤ 25.물체를 보면서도 인지하지 못하는 경우를 무주의 맹시라고 한다. 26.④ 27.① 28.③ 29.② 30.④ 31.② 32.윗글에 나타난 서술상의 특징에 해당하는 것은 ㉠,㉡,㉢이다. 33.③

- 끝 -

5-(1) 고릴라를 못 본 이유

1.② 2.② 3.④ 4.④ 5.④ 6.무주의 맹시는 우리 주변에서 흔히 일어날 수 있다. 7.① 8.⑤ 9.② 10.무주의 맹시 11.㉠ 목뚝 ㉡ 발뚝 12.⑤ 13.⑤ 14.⑤ 15.① 16.① 17.④ 18.② 19.⑤ 20.⑤ 21.⑤ 22.'고릴라 실험'